

2016 년 6 월 12 일(주일) 기독교를 소개합니다(10) “예배가 뭐죠?”(요일 1:1-4)

[1] 예배가 뭘까요?

예배 = 나에게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반응하는 행위.

- worship 찬양하다, 경배하다, 칭찬한다

- 카톨릭 미사 보낸다는 뜻. 삶으로! 예수 생명의 힘을 펼치고 살아야 곳을 말함.

1 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 **예수를 만난 기쁨과 경탄, 감사와 헌신**. 그들은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희망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 안에 부여된 예수의 생명의 힘,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에 관해서 말함.

1 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구약 -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계를 창조,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본질.

신약 - 사도 요한은 그리스(헬라) 문화에서 믿는 만물의 이치, 로고스(말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은 로고스가 바로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체화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성육)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사귀어 갖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2 절).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고,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사귀어, 그것은 곧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귀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귀어의 뚜렷한 결과는 기쁨입니다(4 절).

[2] 사귀어로부터 얻는 기쁨.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 다릅니다. 세상 즐거움은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소스가 끊기면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사귀어으로써 오는 내적 선물로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에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참 사랑을 향한 기대와 열정과 담대함의 의지적 힘**을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솟아나 사랑을 향해 나와 주변을 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힘,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나의 기쁨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이 땅에서 제일 풍성하게 나타나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식의 순서가 있든, 자유롭든, 기쁨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늘을 품고 땅에서 약동해야 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예를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합창 교향곡 9 번을 완성시킨 악성 베토벤을 소개하겠습니다. 베토벤이 23 살 때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가 쓴 “환희의 송가”를 읽고 이것을 음악으로 재탄생 시키려고 결심했습니다. 31 년 뒤(1824 년), 합창 교향곡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4 악장 후반부, 바리톤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합창의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벗들이여, 지금 이 단순한 가락이 아니다! 더욱 즐거운 가락 그리고 기쁨에 넘친 가락을 함께 부르자!  
(이것은 베토벤이 붙인 가사) 기쁨이여! 아름다운 주의 빛, 낙원에서 온 아가씨여, 우리들은 불에 취한듯  
열정에 넘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리. 그대의 매력적 힘은 가혹한 세상이 깨어버린 것을 다시 결합시키도다.  
그대의 날개에 머물 때 한낱 누추했던 거지는 고귀한 왕자의 형제가 되리라.

포옹하라! 만민들이여! 온 세상에 입맞추리라. 형제들이여! 푸른 하늘 위에는 사랑하는 주가 분명히  
계시리라. 땅에 엎드려 비나니 만물들이여 창조주를 믿는가? 푸른 하늘 위에서 주를 찾으라. 많은 별 위에  
그는 분명히 살아계시다. 품에 안겨라. 만민들이여! 온 세상에 입 맞추리라... 기쁨이여! 아름다운 주의 빛,  
낙원에서 온 아가씨여, 기쁨이여, 아름다운 주의 빛이여!  
[9 번 교향곡 4 악장 참고(한글 가사) - <https://www.youtube.com/watch?v=ENiKMqKQSXU>]

**<맺음>**

예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도 하늘의 뜻을 이루리라는 성도의 내적  
기쁨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주 예수께서 믿는 자의 내면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얻게 된 것을 드높이는(activate)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듣는 시간 말고는 모두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찬양, 고백, 기도, 헌금, 인사.. 모든 것이  
능동적입니다. 기쁨이 담긴 능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중요한 목상 소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의 충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성찰하면서 나누어 봅시다. 무엇을 위한  
예배였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2. 성도의 내적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위의 설명을 참조하여) 표현해 보세요. 내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의 씨앗이라도 있다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상황과 조건에 휘말리지 않는 성도의 기쁨, 즉, 생명의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발휘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당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